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23면	도의회 안전건설위 요코하마시의회 교류	1
엔사이드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일본 소방?시민방제 ...	2
연암뉴스		강원도의회, 해외 교류 협력.선진 정책 벤치마킹 동분서주	3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 베트남 다낭시의회 자매결연 등 논...	4
강원신문 <small>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small>	온라인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 다낭시의회와 간담회 개최...교류 ...	5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안전할 때 신나는 올림픽!	6
江原日報		[포토뉴스]속초시 청호동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7
강원도민일보	01면	대회 방역·안전관리 준비 완료...눈 속 개회식 예고	8
강원도민일보	02면	개막 코앞인데 강릉 도심 한산...2018대회 때와 사뭇 달라	8
江原日報	05면	평창 올림픽시설서 노로바이러스 2명 확진	9
江原日報	04면	올해부터 늘봄학교 전면 도입	9
江原日報	13면	속초 출산장려금 설악권 '최저 수준'	10
강원도민일보	11면	원주 반곡-금대 관광사업 올해 본궤도 진입	10
강원도민일보	14면	삼척시 KTX 도입 타당성 검토 나선다	11
강원도민일보	15면	"순대 2만원" 흥천강 공공축제 바가지 요금 논란	1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올림픽 자원봉사자 전폭 지원을	12
江原日報	19면	[사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기 집행해야	13
江原日報	19면	[사설] 민생 안정 대책, 여야 협력해야 실효 거둘 수 있다	14

강원도민일보

2024 01 18 ()

23



도의회 안전건설위 요코하마시의회 교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영)가 일본 도쿄, 요코하마 공무국외출장에 나선 가운데 지난 16일 요코하마시의회에서 양의회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도의회

2024 01 17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일본 소방?시민방제 우수정책 벤치마킹

김아영 기자

- 1.15.(월) ~ 18.(목), 일본 도쿄, 요코하마 일원

- 선진 소방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의회제도 연구 및 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 모색 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기영, 국힘(춘천3))는 1월 15일(월)부터 18일(목)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일본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선진 재난방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자 요코하마시의회, 요코하마 소방국, 요코하마 시민방제센터, 일본 국회 등을 방문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먼저, 1월 16일(화)에는 요코하마시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간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요코하마시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였다. 이어서 요코하마 소방국을 방문해 일본 소방 조직 및 운영시스템과 재난 대응체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시민방제센터에서 방제센터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였고 지진?화재 시뮬레이션 등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1983년에 개설된 요코하마 재난방제센터는 요코하마 일대의 도시 재해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방제 지식을 교육하며, 비축 물자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1월 17일(수)에는 일본 국회를 방문, 국민민주당(제3당) 당대표인 다마키 유이치로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후에는 마쓰시타정경숙을 방문하였다. 마쓰시타정경숙은 일본 정치지도자 양성학교로 주요 배출 정치인으로는 제95대 일본 총리에 올랐던 노다 요시히코 전 민주당 대표가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일본의 각 기관 방문 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공식 마스크 트인 문초 인형을 직접 전달하며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은 “일본은 지진 등 대형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인 만큼 관련 대응시스템이 아주 잘 구축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재난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대응 시스템이 선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연수 소감을 밝혔다.

2024 01 17 ()



강원도의회, 해외 교류 협력.선진 정책 벤치마킹 동분서주



일본 요코하마 찾은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비회기 기간을 이용해 해외 교류 협력 강화와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의정 역량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17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위원회는 일본과의 교류 협력 방안 모색과 선진 재난 방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자 지난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요코하마 시의회.소방국.시민 방재센터와 일본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박기영 위원장은 "일본은 지진 등 대형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인 만큼 관련 대응 시스템이 아주 잘 구축되어 있음이 느껴졌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배운 바를 관련 부서와 공유해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지난 9일 베트남 다낭시의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강원도의회를 방문했던 다낭시의회 의장단 초청으로 이뤄졌다.

양 기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다낭시 관광청과 외무국 관계자, 한국과 베트남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와 다낭시 간 자매결연 협약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정재웅 위원장은 "양국 간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 강원도와 다낭시 간 우호 협력 구도 구축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베트남 다낭 찾은 사회문화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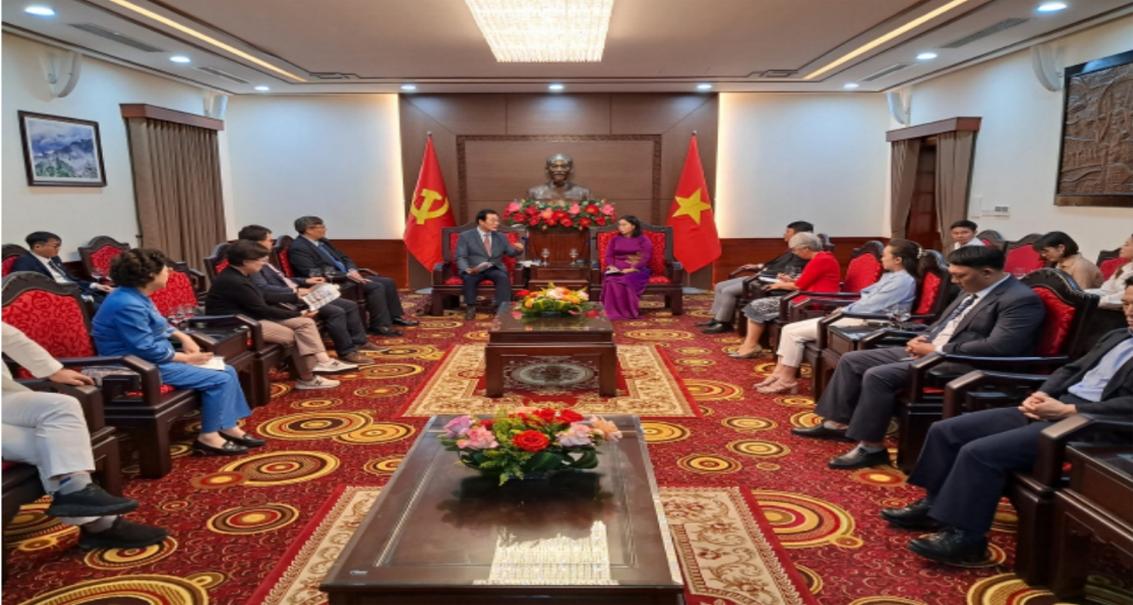
conanys@yna.co.kr

2024 01 17 ()

강원도민일보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 베트남 다낭시의회 자매결연 등 논의

이설화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가 지난 9일 베트남 다낭시 인민의회에 방문해 양 기관 자매결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가 최근 베트남 다낭시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양 기관 자매결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지난 9일 베트남 다낭시 인민의회에 방문해 이같은 안을 논의했다. 이자리엔 정재웅 위원장과 사회문화위원, 응우옌 티 안 티 다낭시 인민의회 부의장, 다낭시 관광청 및 외무국 관계자,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응우옌 티 안 티 부의장은 “다낭은 정보기술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한국의 선도적인 도시인 강원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문화, 사회, 관광의 협력을 강조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가 지난 9일 베트남 다낭시 인민의회에 방문해 양 기관 자매결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정재웅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의 발전 중심지 중 하나로, 특히 관광 산업은 강점 중 하나”라며 “양국 간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교류 활동을 강화하자”고 했다.

다낭시 의회 측에선 자매결연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강원도의회는 협조를 약속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3박 5일간 베트남 다낭과 호이안을 방문했다. 사문위는 이번 방문이 지난해 9월 도의회에 방문했던 다낭시의원들의 초청에 따른 답방이라고 밝혔다.

lofi@kado.net

2024 01 17 ()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 다낭시의회와 간담회 개최...교류 협력 강조

정찬범 기자

양국 간의 협력 강화와 교류활성화 방안 및 자매결연 협약 논의 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 민주(총천5))는 베트남 다낭시의회와 지난 9일, 다낭시 인민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 교류 협력에 대한 새로운 도약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3년 9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던 다낭시의회 의장단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간담회로,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과 다낭시의회 부의장 응우옌 티 안 티, 다낭시 관광청 및 위무국 관계자,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낭시 인민의회 부의장 응우옌 티 안 티는 "다낭은 정보기술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도적인 도시인 강원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응우옌 부의장은 특히 문화, 사회, 관광, 노동파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의 자매결연 협약 등을 통해 양 지역 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의 발전 중심지 중 하나로 다양하고 역동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관광 산업은 강점 중 하나"라며, 양국 간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교류 활동을 강화하자고 했다.

또한, 다낭시 인민의회 부의장의 자매결연 프로그램 제안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하였고, 이를 통해 도와 다낭시 간의 우호 협력 구도 구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섭은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다낭시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계획을 소개하며 양 지역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VKBA 회장 켄 하이 린은 "다낭의 각 기관과 강원특별자치도 간, 협력을 촉진하고 양국의 경제와 관광 분야에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양국 간의 우호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국 간의 협력 강화와 교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계획이 마련되었으며, 양측은 향후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정찬범 기자 gwnews@hanmail.net

江原日報

2024 01 18 ()

19

최근까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2023 고성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안전에 향한 강원자치도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강원자치도는 또 다른 도전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올림픽으로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14일 동안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횡성군 4개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79

개국 1,803명의 선수를 포함한 1만5,000여명의 참가 규모를 가진 명실상부 세

계 최고의 청소년 국제대회입니다. 이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국제대회를 앞두고 정부 및 우리 강원자치도는 지난해에 있었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반면 교사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매서운 한파가 휘몰아치며 도내 겨울철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강릉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평창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 화재가 발생해 도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준비도 준비지만 뜨거운 여름의

강원포럼

박기영 강원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무더위 속 참가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잼버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한겨울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매사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강원자치도의 경우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이 많지 않아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를 보다

안전할 때 신나는 올림픽!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발생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조직위원회와 소방본부에서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종합상황실을 꾸려 선수촌과 경기장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했으며 소방본부는 대규모 신고를 대비한 전담상황실을 운영하고 경기장에 180명의 소방안전요원 및 45대의 소방·구급차량을 배치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준비는 아무리 지나치더라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꿈을 펼칠 소

중한 기회입니다. 청소년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며, 이를 통해 꿈과 열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노력

이 계속되어야만 참가자들의 꿈과 열정에 대한 추억도 아름답게 남을 것이기에 참가자들과 관중들이 안심

하고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중요할 청소년들에게 이번 청소년올림픽이 최고의 기억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강원자치도를 방문하는 전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올겨울 세계 최고의 청소년 축제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안전올림픽으로 치러지기를 기원하며 대회 준비를 위해 추위도 불사하고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신 대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江原日報

2024 01 17 ()

[포토뉴스]속초시 청호동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나눔기금 조성을 위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17일 청호동주민센터에서 이병선 속초시장, 김명길 속초시의장 및 시의원, 강정호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대회 방역·안전관리 준비 완료... 눈 속 개회식 예고

01

GANGWON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D-1

대회기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내일 개회식 강릉 눈·비 예보
노로바이러스 감염 역학 조사
도 상황실 폐막까지 일일 점검

기온은약 2도로 영상의기온을보이지만, 눈이 이어지면서 체감온도는더 추울수있겠다. 기온은당분간평년보다는높겠다. 18일아침최저기온은영서-2~2도, 산지0~2도, 영동2~7도다. 낮최고기온은영서7~10도, 산지2~3도, 영동6~8도로예보됐다.

■노로바이러스 공포

동계청소년 올림픽은 시작 하기 전 식중독 문제가 불거졌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평창 알펜시아 내 식당에서 식사한 후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대회 관계자 6명 중 경기 심판 2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지난 16일 식중독 의심 신고 접수 후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노로바이러스 신속검사를 진행, 6명 중 2명에게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조지위는 시설 환경과 조리 시설 등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 79개국 선수들이 눈과 얼음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 모인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의 개회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9일까지 눈이 이어지면서 개회식은 눈 속에서 열릴 예정이다.

■눈 속 시작하는 2024 강원대회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은 맑은 날씨와 많은 눈 속에서 시작한다. 개회식은 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동에서 오후 8시 시작된다. 19일 대회가 열리는 평창·정선 등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15cm의 눈이 내리고, 영동중·북부는 최대 7cm, 남부는 3cm 가량 눈이 오겠다. 18일 오전 6시쯤 영동 남부에는 한때 5mm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성공대회 총력전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회에 앞서 성공 개최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강원대회 2024 강원특별자치도 종합상황실'을 7개 부 30명으로 구성해 24시간 총력 지원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김진태지사도 대회 기간 중 열을 이상한 강원도 종합상황실에 상주해 대회 운영을 총괄할 계획이다. 종합상황실은 정광열 경제부지사가 행정지원본부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이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도 종합상황실은 조지위와 개최도

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응급의료 지원과 감염병 대응, 재난안전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일일 보고를 원칙으로 안 좋은 건은 반드시 보고하고 폐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신재훈·김덕형 ▶관련기사 2-6-21면

강원도민일보

개막 코앞인데 강릉 도심 한산... 2018대회 때와 사뭇 달라

02

대회 앞둔 강릉지역 현장 가보니
경기장·선수촌 외 분위기 썰렁
2024 강원대회 홍보 미흡 지적
음식·숙박업계 특수 실종 우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17일 강릉 올림픽파크 주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호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 (이하 2024 강원대회)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최지인 강릉지역은 2018 동계올림픽 때와 달리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17일 오후 2024 강원 대회 개회식이 진행되는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주요 경기들이 펼쳐지는 아이스아레나, 하키센터 등 주변 경기장은 올림픽 유니폼을 착용한 자원봉사자와 조지위 관계자들이 막바지 점검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회에 참가하는 각국의 선수들을 태운 셔틀버스가 도심 곳곳 운행되고 경찰들은 도로 교통 통제를 벌이는 등 청소년올림픽 개막이 다가왔음을 실감케 했다.

지난 15일부터 선수단이 속속 입촌하고 있는 강릉원주대에서는 관계자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선수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태극기 표장이 붙어있는 흰색 목도리를 선물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활기찬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 경기장과 선수촌을 제외하면 올림픽 개최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도심 전반은 가라앉았다. 개최 전부터 축제 분위기로 떠들석했던

2018 동계올림픽 때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보이면서 대회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올림픽 일환으로 오는 2월 1일까지 강릉 경포해변에서 진행되는 '바닷가 갤러리-

지구를 지키는 공생의강원' 전시 현장 역시 작품들이 덩그러니 놓여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강릉에서 4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김원근(67)씨는 "손님들도 가족 단위 손님은 없고 젊은 사람들이 주말에 조금씩 오는 거 말고는 전혀 썰렁하다"며 "평창올림픽 때는 나름 강원도 봄이 있었는데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이선종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장도 "이번 동계청소년올림픽 인원 규모가 약 2000명 정도고, 평창, 정선, 횡성 등 여러 곳으로 분산되다 보니 크게 올림픽 효과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조지위와 사전 계약을 못한 5-6개 숙박업소를 제외하고는 이번 대회로 이득을 보는 업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객 김모(25·서울)씨는 "올림픽 개막식을 보려고 강릉 관광 겸 놀러왔는데 주요 관광지부터 도심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너무 썰렁해서 깜짝 놀랐다"며 "국제대회가 열리는 지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도시가 조용하다"고 말했다. 이연제·김정호·신재훈

江原日報

05

평창 올림픽시설서 노로바이러스 2명 확진

조리실 미검출 종사자도 음성 '국내 유행·한파'에 당국 비상 선수촌 식당 등 시설 긴급 점검

속보=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두고 대회 개최 시설인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내 식당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본보 17일자 5면 보도)된 가운데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추가 발생 우려까지 커지자 지역미 질병관리청장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정부와 조직위원회가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한 비상태세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지난 16일 신고 접수 후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노로바이러스 신속검사를 진행한 결과 6명 중 2명에게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검사를 진행한 조리종사자 2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리실 내 환경 등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7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를 방문해 강원2024 대회 선수촌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고, 개막식 이후에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로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미 질병관리

청장과 오유경 식약처장이 17일 강릉선수촌과 대회 공식 병원으로 지정된 강릉아산병원을 긴급 방문, 선수촌 식당 등 식음료 취급시설의 위생·안전 관리 현황과 감염병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대회가 성공

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식재료와 급식시설 등에 대해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며 "손씻기, 재료·조리기구 등 세척·소독을 강화해 주시고 가열온도와 조리시간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원2024취재단=박서화·최기영기자

江原日報

04

올해부터 늘봄학교 전면 도입

강원자치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늘봄학교' 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를 뜻하는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핵심 국정과제로,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기존 돌봄사업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초교 1학년 학생 중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늘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맞벌이 부부가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아 부담

도교육청 1학기 초교 133곳 운영 2학기부터는 모든 초교 시행 일각서 "현장 의견수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졸속 행정" 반발

을 완화하고, 교원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추가 인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가 운영되면 2024학년도 1학기부터 학교 정규수업시간(오전 9시~오후 1시)이 끝나고 최대 오후 7시까지 진행돼 학생들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다.

특히 기존 단순 돌봄에서 벗어나 놀이와 체험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돌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1학기에는 도내 초교 중 현재 늘봄학교 전담인력(방과후전담사, 초등돌봄전담사)이 배치된 113개 학교 및 다음 달 늘봄업무 담당 기간제교사가 배치되는 20개 학교 등 총 133개교에서 진행된다. 2학기부터는 도내 전체 초교 349곳에서 전면 시행된다. 올해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25학년도부터는 대상 학년을 초교 2년으로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늘봄업무를 담당할

'초등돌봄전담사'를 학교당 1명씩 배치하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교사 344명 배정을 교육부에 신청한 상태다. 기존 초등돌봄사 고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교육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늘봄학교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현장 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 등은 22일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강동취기자

2024 01 18 ()

江原日報

13

속초 출산장려금 설악권 ‘최저 수준’

첫째 50만원 ... 최종현 시의원 “상대적 박탈감”
시 “복지부 확대 불가 입장 ... 상향 어려움 많아”

【속초】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설악권 4개 시·군 중 속초시의 출산장려 지원금이 가장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종현 속초시의원은 1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23년 말 속초시 인구는 8만2,054명으로 전년 대비 752명이 줄어 인구 감소 대책이 시급하다”며

“인구증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 여러 가지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정책인 출산장려금 지급 금액이 타 지자체의 평균 금액 정도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속초시의 출산장려금은 인근 설악권 시·군보다 매우 낮다.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의 경우 인제군은 200만원, 고

성군 140만원, 양양군 200만원이지만 속초시는 5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인제군의 4분의 1 수준으로 3개 군 평균인 187만원보다도 턱없이 적다.

특히 양양군은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으로 820만원을, 인제군은 500만원, 고성군은 46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속초시는 1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넷째의 경우 양양군이 1,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제군 700만원, 고성군 460만원, 속초시 200만원 순이다.

최종현 시의원은 “각 지자체마다 여건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 금액이 차이가 나며 적게 받는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과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협의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성 지원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kwo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1 18 ()

11

원주 반곡-금대 관광사업 올해 본격도 진입

국유지 매입·인허가 본격화
파빌리온 스퀘어·금빛파리굴
올해 착공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

원주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반곡-금대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이 올해 본격도에 오를 전망이다.

원주시는 지난 2019년 국가철도공단과 ‘철도자산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협약하고 반곡-금대관광활성

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가 기본 구상 완료 후 본격 추진에 앞서 지난 2021년 부지내 국유지 매입에 나섰으나,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속도를 내지 못해 왔다.

다행히 지난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사업 부지내 국유지와 터널, 교량, 선로 등 철도시설물 매각 처분을 승인, 시매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부지내 국유지를 매입하고 국립공원공단 인허가 등을 거쳐 올해부터 추진을 본격화한다.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은 반곡 파빌리온 스퀘어, 금빛파리굴 조성 사업이다.

반곡 파빌리온 스퀘어는 근대문화유산인 반곡역을 중심으로 철도 문화를 담은 공원을 조성, 이색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빛파리굴은 약 2km의 파리굴에 최첨단 IT 기술과 미디어아트, LED 조명, 인터랙티브 영상 콘텐츠를 적용, 오감으로 즐기는 디지털 테마터널을 선보이게 된다. 올해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반곡역과 금대역을 운행할 관광열차(2량)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 하반기 시범 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 개통할 계획이다. 원강수 시장은 “2단계로 반곡역 IC 입체교차로를 개설해 접근성 향상은 물론 외곽 관광지 방문객을 시내로 유입, 새로운 원주 체류형 관광을 창출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간헐관광지와 함께 지역을 살찌울 실질적 원주관광 1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정태욱

강원도민일보

2024 01 18 ()

14

삼척시 KTX 도입 타당성 검토 나선다

올해 개통 동해선 전철화 연계 삼척역 KTX연장 연구용역 착수 시 “결과 토대 정부 설득 방침”

삼척시가 올해 개통 예정인 포항~삼척간 동해선 철도 건설과 연계해 현재 동해역까지 운행중인 KTX를 삼척 구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는 최근 ‘삼척역 KTX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말 신축 개통하는 동해선 전철화 (포항~삼척~동해) 완공에 맞춰 삼척역 KTX (동해~삼척) 도입에 따른 타당성과 당위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에 KTX 운행 연장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다.

삼척~동해간 구간은 그동안 비전철로 인해 고속철도 (KTX) 서비스의 사각지대였으나, 동해선 전철화가 완공되면 동해~삼척간 KTX 직결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동해까지 운행중인 KTX를 삼척까지 연장해 그동안 철도교통에서 소외됐던 삼척시민들에게 고속철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삼척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신규 철도 구축 사업이 잇따라 완공되는 확정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KTX 삼척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해 말이면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 (166.3km) 철도공사가 마무리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2021~2030년)에 삼척~강릉간 고속화 철도가 반영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 동해선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동해역에서 KTX 삼척 구간 연장 운행이 가능한 기반 시설이 마련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을 위해 동해~삼척간 전철 단절 구간 해소 가 필요하다”며 “이번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를 상대로 KTX 운행 연장을 위한 설득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정민

강원도민일보

2024 01 18 ()

15

“순대 2만원” 흥천강 품앗이축제 바가지 요금 논란

온라인 게시물·음식사진 확산 재단, 위탁업체 시정 조치·사과

최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12회 흥천강 품앗이축제 야시장의 음식 사진과 함께 바가지 요금임을 주장하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자 축제의 주최측인 흥천문화재단이 입장문을 통해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15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시장 음식 사진과 바가지 요금 관련 글이 게시돼 일파만파 확산됐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순대 2만원, 국수 7000원, 떡볶이 7000원 등 총 3만 4000원

이나 지불하고 주문했음에도 부실했다며 해당 음식 사진이 ‘충격적인 가격’이라는 글과 함께 게시됐다.

흥천문화재단은 17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장문을 내 관리 소홀을 인정하면서 방문객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해당 업체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원활한 축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야시장 위탁업체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 현재 적정가로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재단 관계자는 “야시장 가격과 관련해 해보다 강력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방문객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축제장 내 착한 가격과 품질로 축제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지역 업체들과 방문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유승현 yoosh@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1 18 ()

/ 19

올림픽 자원봉사자 전폭 지원을

-불만 민원 잇따라... 활동 편의 보장해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앞두고 2000여명 규모의 자원봉사자들도 개최도시에서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시작하기 도전에 이탈자가 발생하고, 불만의 소리도 나옵니다. 이들은 경기장 안팎에서 올림픽을 이끈다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봉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애로가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봉사과정에서 편의를 보장할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위와 도는 면접 심사, 기본교육 및 외국어 테스트 등 과정을 거쳐 최근 자원봉사자를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통역, 안내, 문화 행사, 수송, 숙박, 경기운영 등의 분야에서 발로 뛰면서 대회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난해 말 열린 발대식에서 봉사자들은 상호 존중의 올림픽 정신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겠다고 선서하며 올림픽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대회를 목전에 두고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도 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취업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180여명이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발 인원

2134명의 8.4%입니다. 조직위는 대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탈 동향은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더구나 현장에서는 개막 전부터 불만이 쌓여 추가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봉사자는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 거리가 멀고 교통편이 여의찮아 출근하는데만 2시간이 걸린 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유니폼 외에 겨울철 야외 필수용품조차 받지 못해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민이 아닌 타지역 봉사자도 80%를 차지해, 지원이 부족할 경우 이탈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조직위는 개최도시 내 자원봉사센터와 공공기관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600여명 규모로 예비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을 고려한 대책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봉사자들은 선수와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면하고 안내해 현장에서 성공대회를 만들어 갑니다. 또한 이들의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가 도시와 대회의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에게도 세심한 지원과 뜨거운 응원을 보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 01 18 () / 19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기 집행해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약 8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5조원과 소상공인 3조7,000억원이다. 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 규모를 7,000억원 확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취약한 위기관리 능력과 대응 전략도 없이 코로나19 위기 상태에 진입했고 끝도 모르는 상황 속에 오로지 버티기로 일관해 왔다. 그런 점에서 정책자금 지원 확대는 올바른 방향이다. 고금리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더 이상 이들을 가혹한 시장 논리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이며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들이 번성해야 지역 경제도 활력이 돈다. 따라서 이들의 폐업은 지역 경제의 뇌관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이 이들에게 마중물이 돼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기 1조9,958억원, 성장기 2조1,424억원, 재도약기 5,318억원, 전 주기 2,875억원 등 성장단계별로 4조9,575억원이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대상 지원 자금은 1조7,958억원이다.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올해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0억원 늘었다. 문제는 정책자금이 조기에 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사업을 접고 싶어도 생계 유지나 더 큰 손해를 감내하기 어려워 빚을 끌어들이며 파산을 면하고 있는 ‘한계 소상공인’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으로 지역 경제가 건전성을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이

들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 중 하나다. 정책자금의 신

속한 지원으로 이들에게 기사회생의 길을 터 줘야 할 때다.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특단의 정책 자금 집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나열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책자금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때까지 감안해 조기 집행의 시간표를 짜야 한다. 올 경제 성장률은 내수 부진과 고용사정 악화로 최악의 경기 침체를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의 적기·적소 투입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명운이 걸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올 8조7,000억원 지원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실질적인 도움 줄 때
 ‘선택과 집중’으로 적기·적소에 투입을

江原日報

2024 01 18 ()

/ 19

민생 안정 대책, 여야 협력해야 실효 거둘 수 있다

정부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성수품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 관광 활성화 등이 핵심이다. 당장 사과, 배 등 대형마트의 성수품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농협 과일 선물세트 10만개는 최대 20% 싸게 팔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액이 지난해 300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전기 요금을 지원한다. 또 비수도권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숙박쿠폰 20만장을 풀기로 했다. 고물가, 고금리에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들은 서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새해 들어 과격적인 민생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취약계층 전기 요금 인상을 한 번 더 유예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대출금 이자를 최대 150만원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고, 이튿날에는 당정 협의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1년)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의 자동차 부과 보험료 폐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 삭제 방안, 국토교통부의 '1·10 주택대책'이 이어졌다. 최근 정부의 민생 정책은 재정 부담, 형평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책 실행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정이 불가능하다.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다.

정부의 민생 대책이 4월 총선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이 있지만 위축된 경기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교육지책일 것이다. 하지만 당정이 경제 회복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려면 야당과의 협치 없이 가능한 정책만 시행해서는 안 된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희망고문'으로 끝나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총선용 카드가 아니라면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야당 또한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누구든 민생 걱정을 덜고 활력을 더하는 정책 목표에 반대할 리가 없다.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물가 안정, 민생 지원 및 격차 해소 등은 명절이 아니어도 늘 추진돼야 할 중점 과제다. 정치의 구실, 정당의 역할이 민생을 챙기고 올바른 정책을 펴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민생 정책이 민생 담론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